



Not Rated

주가(3/14): 7,110원

시가총액: 2,177억원

전기전자/가전

Analyst 김지산

02) 3787-4862

jisan@kiwoom.com

## Stock Data

KOSPI (3/14)		2,133.78pt
52 주 주가동향	최고가	최저가
최고/최저가 대비	7,230원	5,100원
등락률	-1.7%	39.4%
수익률	절대	상대
1W	6.4%	3.5%
1M	N/A	N/A
1Y	N/A	N/A

## Company Data

발행주식수	30,625천주
일평균 거래량(3M)	187천주
외국인 지분율	3.1%
배당수익률(17E)	
BPS(17E)	
주요 주주	LS전선 57.0%

## 투자지표

(억원, IFRS)	2015	2016
매출액	2,001	3,451
영업이익	111	195
EBITDA	136	218
세전이익	82	184
순이익	61	147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5	132
EPS(원)	358	436
증감률(%YoY)	N/A	21.6
PER(배)	0.0	16.3
PBR(배)	0.0	1.6
EV/EBITDA(배)	1.0	-0.8
영업이익률(%)	5.6	5.7
ROE(%)	10.7	11.4
순부채비율(%)	12.4	-180.9

## Price Trend



## 탐방 코멘트

## LS전선아시아 (229640)

## 80년대 한국 전선업의 재현



LS전선아시아에 투자한다는 것은 1980년대 한국 전력 시장에 투자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베트남 전력 시장은 산업화, 도시화 속에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동사는 베트남 1위 전력선 업체로서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다. 올해 동 가격 상승이 우호적이고, 광케이블 증설 효과가 더해지며, 전력선 수주잔고도 늘어난 상태다. 미얀마 법인 설립, MV 전력선 및 광케이블 증설을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 &gt;&gt;&gt; 동 가격, 베트남 전력 수요 등 사업 환경 우호적

베트남 1위 전력선 업체인 LS전선아시아는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15% 이상 신장할 전망이다. 베트남 전력 시장이 연평균 15% 이상 고성장하는 환경에서 적극적인 설비 증설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긍정적 전망의 근거는 1) 전기동 가격이 현재 5,800달러/톤 내외로 전년 평균(4,860달러/톤) 대비 19% 높아 자연스럽게 매출액 증가로 반영되는 동시에, 전력선 발주를 자극할 것이고, 2) 글로벌 광섬유의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LSCV 광케이블 증설 효과가 하반기부터 더해지며 베트남 내 수 및 ASEAN 시장 공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호치민 등 대도시의 송배전망 지중화 사업과 같은 대규모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선의 수주잔고는 지난해 말 856억원으로 45% 늘어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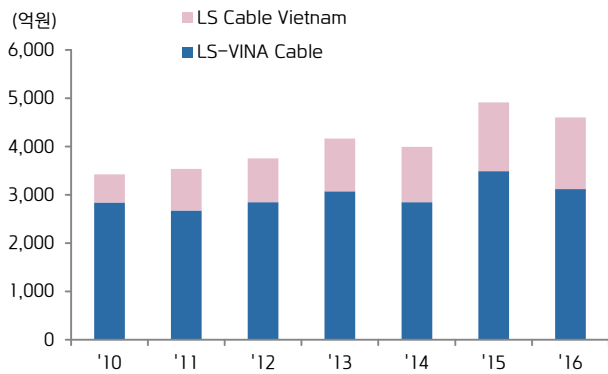
이 외에도 최근 미얀마 법인 설립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미얀마 시장 선점 및 시장 다변화 효과가 기대된다.

## &gt;&gt;&gt; 베트남 도시 전력망 지중화 사업 긍정적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은 한국의 80년대와 유사하고, 한국도 그랬듯이 산업화 시기에 전력 시장은 GDP보다 높게 성장한다. 베트남의 송배전망은 대부분의 개발 도상국처럼 지중선이 아닌 가공선 중심으로 구축돼 있는데, 도시화 및 전기 사용량 증가에 따라 한계에 도달했고, 상시적인 정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도시 지중화 사업이 불가피하고, 일례로 호치민의 MV(중압) 전력선 지중화 프로젝트로 1억 7천만달러 규모의 케이블이 발주될 예정이다. 지중선이 가공선보다 부가가치가 월등하게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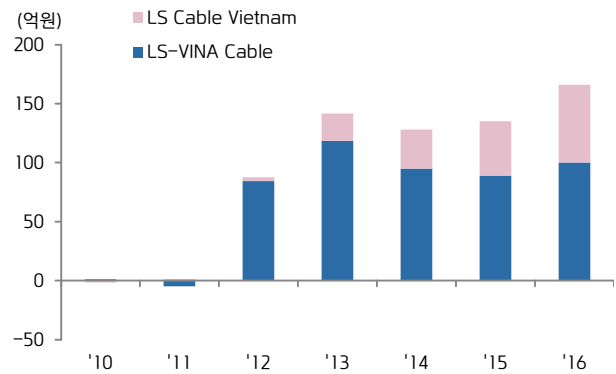
베트남 내 3위 전력선 업체가 시장 철수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동사의 제품 포트폴리오는 MV 전력선과 광케이블 위주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향후 베트남 HV 시장이 개화되는 과정에서 선두 업체로서 수혜가 클 것이다.

### LS전선아시아 매출액 추이



자료: LS전선아시아, 키움증권

### LS전선아시아 순이익 추이



자료: LS전선아시아, 키움증권

### 하노이 시내 전경: 가공 방식 송배전 전력망 한계



자료: 연합뉴스

### 호치민 시내 전경: 가공 방식 송배전 전력망 한계



자료: Goog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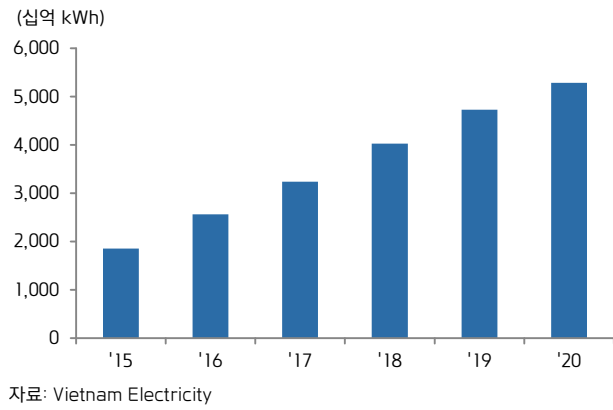
### LS전선아시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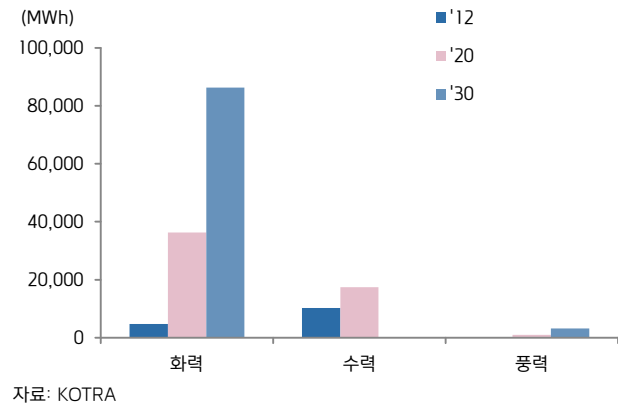
자료: LS전선아시아

LS-VINA	생산제품	CU/AL ROD, 전력케이블(HV/LV/MV, 가공선)			
	소재	전력케이블			
	 CU/AL ROD	 HV	 LV/MV	 가공선	
2016년 실적	매출액 3,120억원/ 영업이익 135억원				
LSCV	생산제품	UTP, 광케이블,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			
	 UTP	 차폐	 광케이블	 저압/중압(LV/MV)	
2016년 실적	매출액 1,487억원/ 영업이익 75억원				

### 베트남 전력 시장: 발전량 전망



### 베트남 전력 생산 목표: 발전원별



- 당사는 3월 14일 현재 'LS전선아시아 (229640)'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견 및 적용기준

기업	적용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추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추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추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추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추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16/01/01~2016/12/31)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75	95.15%
중립	7	3.85%
매도	0	0.00%